

아산정책연구원 갤러리 전시 <이야기해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록 사진전

아산정책연구원은 2013년 1월 28일 (월) ~ 2월 15일 (금), 연구원 1층 갤러리에서 제3차 <이야기해주세요> 사진전을 주최한다 (관람시간: 평일 10:00 ~ 19:00). 1월 30일 (수)에는 일본군 '위안부' 송신도 할머니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참여 아티스트와의 만남, 인디가수 공연 등의 공식 오픈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야기해주세요> 사진전에는 한국과 일본 사진작가들의 작품 및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보도사진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여성전쟁평화 박물관 (WAM,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소장의 '아시아 일본군 위안소 지도'를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으로 최소한의 인권까지도 박탈당하고 전쟁 후에도 계속된 정신적, 육체적 싸움을 곳곳이 이어간 할머니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한편, 일본이 감행한 비인권적 행위를 증명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의 일부로 시작된 문화예술 실천 운동이다.

30일 (수) 오픈 행사에서는, 수요집회, 나눔의 집에서의 일상 등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담은 사진전시와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재판성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송신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려낸 안해룡 감독의 영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상영과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녹여낸 <이야기해주세요> 앨범에 참여한 여성 가수 『투명』과 『시와』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2013년 1월30일 (수) 행사개요

15:00 ~ 16:40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상영 (약 95분)

16:50 ~ 17:30 <이야기해주세요> 앨범 아티스트 투명, 시와 라이브 공연

17:30 ~ 18:00 참여 아티스트와의 대화

언론문의: 이민희 연구원 (02-3701-7377 / minheepd@asaninst.org)
